

忠臣藏의 忠義와 人情*

李 濬 燮**

目 次

1. 연구목적
 2. 『주신구라』 극화의 전개
 3. 『주신구라』의 충의
 4. 『주신구라』의 넌조
 5. 마무리
-

1. 연구목적

곧잘, 기리(義理)와 넌조(人情)¹⁾의 갈등구조로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인형극(人形淨瑠璃)의 드라마를 분석하곤 한다. 이러한 지카마쓰론을 처음 전개한 사람은 아마도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일 것이라고 한다.²⁾ 그는 기리를 외적인 도덕규범으로서의 구속, 그에 대한 인정을 인간자유의 정이라는 식으로 풀어나갔다. 이렇게 되자 지카마쓰 작품을 비평할 경우, 당대의 기리와 넌조와의 갈등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본질로 받아들여져 그 후에도 그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의 전개가 결정되자 지카마쓰 작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에도 문학 작품을 解讀하는 데에 있어서도 무척 유효한 독해장치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와 평론가에 의해 인식되었다. 즉 기리 넌조의 갈등론은 에도시대의 문학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비평상의 입장이

* 이 논문은 2002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조교수 일본근세문학

- 1) 이하, 한국의 의리, 인정과 구별하기 위해 義理, 人情의 일본식 발음인 <기리 넌조>로 표한다.
- 2) 쓰보우치는 메이지20년대부터 유럽의 새로운 문예비평의 방법, 특히 셰익스피어 연구로 성과를 거둔 극중인물의 성격과 심리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지카마쓰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와세다대학 출신자를 중심으로 近松研究會를 조직하여, 연구회에서 「義理와 人情」을 주된 테마로 다루었다.

되었던 것이다.³⁾

또한, 조닌(町人)쪽에서 보았던 武士觀의 例로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武家義理物語』(1688)를 통해 기리를 살펴보자 사이카쿠는 武家の 주종관계를 일종의 계약으로 보았다. 녹을 받아 만일의 비상사태가 발발하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사적인 일로 목숨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으며 그것이 무사의 본래의 도덕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義理는 格別」 하다고 했으며, 기리라는 것은 私的인 윤리를 말한다. 자신의 동료에 대한 기리와 같이 녹을 매개로 한 주종관계가 아닌 자신의 관계를 가리킨다. 기리를 위해 죽는다든지 기리상 원수를 갚는다든지 혹은 기리 때문에 할복한다는 행위는 본래 사적인 일이며, 주인을 모시고 있는 신분으로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카쿠는 기리는 각별하다는 담론을 늘어놓는다. 즉 格別하다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리의 의무,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도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사의 모럴을 언급할 경우, 무사가 기리를 중히 여겨 義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그 행위에 사적인 기리와 공격적인 기리가 있다는 셈이 된다. 그리고 조닌들은 봉건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규제적인 모럴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체제 쪽으로부터 항상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생의 방어수단으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에도(江戶)시대의 사건으로 사회적 영향이 컸으며 후세에까지 기억되어 소설화, 극화된 江戶三大事件이 있다. 그 중, 赤穂浪士事件은 <주신구라>의 이름으로 유명하다.⁴⁾ 1702년 아코 낭인 오이시 유라노스케(大石由良之助)를 비롯한 47인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기라 고즈케노스케(吉良上野介)의 저택을 습격, 주군 아사노 다쿠미노카미(淺野内匠頭)의 원수를 갚는다. 도쿠가와 막부의 시기를 통하여 무사도의 참뜻을 시험하는 논쟁을 赤穂浪士事件에서 찾기도 한다. 오늘날의 가부키(歌舞伎) 분라쿠(文樂)는 고전극의 전통에 능이지만, 그 당시는 현대극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인에까지 주신구라 이야기에 매료되는 것은 단지 허구의 재미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안에는 일본의 현대인들이 상실한 무사적 에토스에 대한 동경과 감동도 들어있을 것이다. 『假名手本忠臣藏』(이하, 『주신구라』)은 오로지 영주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의 원형으로 파악되는 忠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목표가 서면 전원이 일체히 행동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義로 승화되어 있다. 그리고 무사뿐만 아니라 상인도 그 무사집단에 참가시켜 의리있는 상도를 발휘하게 하는 등 일본의 모든 계층이 관심을 갖게끔 드라마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본인의 정서와 일본

3) 지카마쓰의 작품 중에 기리와 년조의 대립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心中天の網島』 등의 드라마도 있다.

4) 그 밖의 사건으로, 1651년 낭인 유이 쇼세쓰(由井正雪)·마루바시 추야(丸橋忠弥) 등이 낭인 구제를 목적으로 에도 슌푸(駿府) 등지에서 소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전에 발각된 慶安事件과, 『大岡政談』 등으로 각색된 天一坊事件이 있다.

사회의 원리가 형상화되어 있는 일본의 국민극을 통해 일본인과 일본사회를 이해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주신구라』 극화의 전개

46인의 낭인에 의한 습격은 겐로쿠의 태평성대를 뒤흔들어 놓는 대사건이었다. 정치도 사이기도 했던 에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원래 뉴스성이 많아 일본 전역으로 전해져 서민들의 화제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겐로쿠 시대의 조닌문화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好色一代男』(1682)을 비롯하여 히시카와 모로노부(菱川師宣)의 「見返り美人」를 대표로 하는 우키요에(浮世繪), 의복도 겐로쿠 고소데(元祿小袖)탕 후리소데(振袖) 의상을 유젠(友禪) 모양으로 색을 입히는 등, 가미카타(上方)를 중심으로 한 조닌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대중적인 소비문화를 이룩했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인형극과 가부키는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오사카 다케모토자 극장(大坂竹本座)의 작가인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은 봉건사회의 기리와 난조의 모순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갈등을 그렸으며 그에 따른 동반자살(心中)의 결과는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가부키도 이 무렵에는 가미카타에 와고토(和事)의 초대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郎), 에도에 아라고토(荒事)의 초대 이치카와 단주로(市川團十郎)와 같은 명배우가 등장하여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조루리 인형극과 가부키 상연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 사회적 시사적인 문제에 민감한 극작가는 습격사건을 놓칠 리가 없었다. 상연기록을 보면 놀랄 만큼의 빠르기로 무대에 올려졌다. 1702년(元祿十五) 3월에는 에도 야마무라자(山村座)에서 『東山榮華舞臺』라는 연극이 상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46명이 활복한 1703년 2월 4일의 12일 후인 16일에 에도 나카무라자(中村座)에서는 『曙曾我夜討』이 상연되었다.

사건종결 후 지금까지도 화제의 중심이었던 습격사건이 비록 소가형제(曾我兄弟)의 원수값는 이야기를 빌렸다고 해도 아코 사무라이의 습격을 暗示·寓意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흥행은 바쿠후(幕府)의 명에 의해 3일 만에 막을 내려야 했다. 바쿠후는 이러한 공연의 동향을 고려하여, 실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을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 극화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고 하는 포고를 내렸다.⁵⁾

바쿠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수많은 주신구라 문예물(忠臣藏物)이 시대를

5) 「前々も命ぜられし如く、当時異事ある時、謠曲小歌につくり、はた梓にのぼせ賣ひさく事、弥停禁すべし、堺町木挽町劇場に近き異事を擬する事なすべからず。」(小澤富夫『武士行動の美學』玉川 大學出版部, 1994.6, pp123-4)

바뀌가며 허구의 세계를 그려왔지만 서민들은 주군의 할복, 고난 끝에 이룩한 복수, 그리고 죽어간 주군의 뒤를 따른 할복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忠臣義士라는 명분 이상으로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의리에 살아온 47인과 강력한 주종의 심정적 결합에 감동했던 것이다. 조루리로는 사건이 끝나고 난지 3년째인 1706년(寶永三) 9월에 오사카 다케모토자에서 상연된 지카마쓰 문자에몬의 『兼好法師物見車』가 가장 빠르다. 등장인물 엔야 한간은 아사노 다쿠미노카미, 모로노는 기라 고즈케노스케를 암시하고 있었으며 엔야의 가신인 야하타로쿠로(八幡六郎)가 주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이 공연은 당국으로부터 상연금지 처분도 없었으며 지카마쓰는 이 연극의 속편을 후일담 형식으로 『碁盤太平記』를 발표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시대는 아시카가(足利)시대의 『太平記』의 세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각색도 상당히 사실적이고 관객은 허구의 세계를 통해 현실의 사건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前作의 속편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야하타 로쿠로가 오보시 유라노스케(大星由良之介)로 改名, 그 밖의 배역도 리키야(力彌), 데라오카 헤이몬(寺岡平右衛門), 겐고에몬(原郷右衛門) 등으로 모두 실제 이름의 음을 흉내내어 假名과 時代를 달리하여 상연되었던 것이다.

습격 후 47년째가 되는 1748년(寶延元)에 다케다 이즈모(竹田出雲), 미요시 쇼라쿠(三好松洛), 나미키 센류(並木千柳) 합작의 『주신구라』는 이때까지의 조루리 가부키 각본의 집대성이라 할 만한 결정판인 것이다. 이후의 수많은 작품들은 이 『주신구라』를 모태로 내용 또는 무대구성의 개작, 신작인데 그 중에서도 1934년 2월 도쿄가부키자(東京歌舞伎座)에서 상연된 마야마 세에카(眞山青果)의 『元祿忠臣藏』은 새로운 시점에서 겐로쿠 시대의 복잡한 현실과 인간관계 속에서 情理를 다해 살려고 했던 인간상을 사회적 시야를 통해 극화한 점에 특색이 있다.

주신구라에 관한 가부키 조루리의 상연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아코 사무라이를 소재로 한 연극은 시대와 인물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제목이 「いろは」「假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47인의 사무라이의 수에서 따온 착상이다. 막부 당국도 사건후 거의 50년을 지난 寶延年間(1748-1750) 이후에는 “忠臣義士”라고 세간에서 야단법석을 떨어도 금지와 억압을 가하지 않았다. 享保年間の 『葉隱』와 『武道初心集』에 있어서의 주종 관계도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늘 다짐하면서 살았던 무사들에게 私義로 순직한 아코 낭인의 행동은 세삼 무사 본연의 자세를 묻는 사건이었다. 주신구라 이야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忠臣藏物을 보면 어디든지 에도 서민이 등장해 낭인의 행동에 동정을 보내고 있다. 얼마만큼 그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허구의 인물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사건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이다.

3. 『주신구라』의 충의

『주신구라』는 서민층에서 엇본 사무라이의 세계와, 충의와 넌조(人情)의 갈등, 충의라는 의무의 질곡에 숨가빠하는 에도인의 모습 등을 재현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헌신의 모델인 충의와 또 이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선의 가치가 어떻게 드라마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흔히 『주신구라』는 한국의 『춘향전』과 비교하기도 한다. 이 두 작품은 고전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명실공히 국민극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양국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신구라』를 통해 일본인의 정서와 일본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겠다.⁶⁾

본 연구에서는 『주신구라』라고 하는 고전극문학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이기도 하고 정신현상이기도 한 <충의>와 <넌조>의 갈등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겐로쿠(元祿)시대의 무사는 『주신구라』에 등장하는 유라노스케를 봐도 미타테(見立て)놀이를 하는 등 대개들 풍류적이었다. 충의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도 볼 수 있다. 문화인이라고 할까 상당히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인간이었던 것 같다. 오로지 충의 일변도의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후에 충의만으로 포장된 나니와부시(浪花節)적인 인물로 되어 갔던 것이다.⁷⁾

중세 아시카가(足利) 막부의 고관 고노 모로노(高師直)는 엔야 한간(鹽谷判官)의 처 가 오요(顔世)에 연정을 품고 구애한다. 그러나 가오요는 이를 거절한다. 앙심을 먹은 모로노는 가마쿠라(鎌倉)의 성에서 한간을 몹시 구박한다. 이에 한간은 분을 참지 못하고 모로노를 칼로 치려고 대들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로 인해 한간은 막부의 명령에 의해 할복자살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

主君의 할복 장소에 달려간 가신 오보시 유라노스케(伏星由良之助)는 그 자리에서 주인의 단검을 유물로 받는다. 그 후 오보시는 동지들과 온갖 고생을 해가며 모로노의 목을 노리다가 계획적으로 酒色에 빠진 척하며 적의 눈을 속여 마침내는 원수를 갚는다. 이와 같이 『주신구라』 전체는 사실적으로 아코의 낭인 무사들의 복수를 다루고 있지만, 작가들이 새롭게 構成한 이야기도 많다.

6) 이어령 씨는 한일 비교의 문화 텍스트로서 『춘향전』과 『주신구라』를 사용하면서 주신구라가 복수의 주인공과 집단주의적인 예술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춘향전은 개인적인 예술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한」과 「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어령, 「춘향전과 忠臣藏을 통해서 본 한일 문화의 비교」 『일본 문화의 뿌리와 한국』, 문학과 지성사, 1992년)

7) 철저히 충의의 모습으로 인물이 조형된 것은 메이지 이후의 무사도정신의 고취라든지 일본정신 고취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신구라』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뒤엉켜 있는데, 가장 共感하고 同情이 가는 장면은 오카루(お輕)와 간페이(勘平)의 사랑이야기일 것이다. 오카루는 鹽谷家의 시녀이고 간페이는 가신의 한사람이다. 이 두 사람은 같은 主君을 모시고 있으며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깊은 연애감정(人情)을 지닌 사이이다. 보통 때라면 이롭고 따뜻한 광경인 것이다.

그런데 한간의 가신 하야노 간페이는 애인 오카루와 밀회를 즐기다가 主君의 사건현장에 있지 못하게 된다. 이에 責任을 통감하고 교토 근처의 오카루의 친정 집에서 사냥꾼이 되어 원수를 갚으려는 家臣들의 모임에 참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편, 오카루가 유녀로 몸을 판 돈을 부친 요이치베이(與一兵衛)가 간페이에게 融通해 주려고 가지고 오는데 도중에 도적 사다쿠로(定九郎)를 만나 죽게 된다. 그런데 그 도적을 간페이가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아 죽인다. 간페이는 오카루의 아버지 즉, 장인의 원수를 갚은 셈인데 그는 그것도 모른채 요이치베이를 죽인 줄만 알고 할복 자살하고 만다. 간페이의 할복 장면은 가장 볼만한 『주신구라』의 名場面의 하나로 이 대목에서 진지하고도 처참한 演出은 演技者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일 것이다. 죽음에 의한 葛藤解決은 이 장면에 의해 하나의 美學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무사들의 복수를 형상화한 드라마답게 본 작품에는 수 많은 죽음이 작품 곳곳에 그 흔적을 생생하게 남기고 있다. 총11장 중에서 5장에 걸쳐 8인의 죽음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⁸⁾

충의와 닌조의 갈등을 죽음에 의해 해결한 것은 간페이 뿐만이 아니다. 어느 장면에서나 사건의 해결방식은 항상 죽음으로 그려져 있다. 연극 안에서는 그다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어 上演되는 경우도 적지만, 가코가와 혼조(加古川本藏)가 처한 입장도 큰 공감을 갖는다. 혼조의 죽음도 마침내는 죽음으로 현실적인 가정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주 모모노이 와카사노스케(桃井若狹之助)의 가신 가코가와 혼조의 딸 고나미(小浪)는 유라노스케의 아들 리키야(力彌)와 약혼중이다. 그런데 한간이 모로노를 칼로 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가코가와가 한간을 꼭 껴안아 꼼짝도 못하게 방해했다. 이 때문에 한간의 가신 유라노스케와 혼조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고나미와 리키야는 파혼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뒤에 가서 혼조는 일부러 리키야의 손에 죽어주며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은 맺어진다.

이 이야기는 赤穂事件으로 불리는 一連의 事件에서 題材를 얻은 픽션이다. 이후 사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 무사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논점으로 집약되어 있다. 아사노의 할복자살 후 그의 가신들에 의한 기라 습

8) 그 첫 번째로 제4장에서는 엔야 한간의 할복자살 장면이, 제5장에는 간페이의 장인 요이치베이의 죽음, 제6장에는 간페이의 할복장면이 극의 비장함을 더해준다. 이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으로 『주신구라』의 비극성이 표상된 장면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제5장의 사다쿠로의 죽음과 제7장의 구다유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의 제11장에서의 모로노를 비롯한 야쿠시지와 반나이의 비참한 모습은 악인의 말로를 말해주는 듯하여 관객들을 통쾌하게 한다.

격에 이르기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아코낭인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에도의 급진파와 오이시를 따르는 신중파 간의 의견대립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급진파의 생각은 번의 무사들이 흠어지기 전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충의는 치욕과 一分의 의식, 그리고 세상을 달리한 주군에 대한 심정적인 결합의식이었다. 이에 대한 오이시의 행동원리에는, 가문으로서의 아사노家の 존속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⁹⁾

忠臣藏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748년(寬延元) 오사카에서 初演됐던 人形淨瑠璃 全盛期の 다케다 이즈모(竹田出雲)등의 合作<假名手本忠臣藏>가 인기를 얻어가며 상연되면서부터다. 이윽고 이 연극이 가부키의 起死回生 妙藥(獨參湯)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어 그 후로는 사건과 픽션이 혼동될 정도로 아코 사무라이 사건자체가 문학적이기까지 되었다. 이 일본의 국민극인 주신구라는 기리와 닌조, 충의와 義務의 桎梏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있어 共感이기도 하고 聲援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폭발적인 주신구라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忠臣藏붐> 이지 赤穂浪士 붐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주신구라』에서 나타난 충의의 구체적 事象이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아코사건을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음모의 냄새가 다분히 풍기는 습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체제질서에 대한 의도적 모욕행위였기 때문이다. 부모나 형제 그리고 主君의 원수를 갚는 것은 좋다. 물론 그 경우에도 사전에 당국에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조건이다. 따라서 아코 낭인들의 원수갚기 행위보다도 그것을 숨긴 사실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할복자살이 그 결과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벌이기보다도 무사도의 지상 최고의 영예인 것이다. 혈관의 맹세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러한 결론에 봉착하리라고 그들은 각오했고, 막부 또한 그 정황을 알고 있었다. 盆裁가 숲을 대리하려고 하듯이, 이 축소모델인 『주신구라』는 전쟁 공포의 재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전쟁의 공포가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주신구라』는 일소시키기도 했다. 즉, 정치 무대위에서 재현되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정렬적 헌신, 비통한 상황, 악한 자에 대한 징벌 등과 같은 개인생활의 정경으로서 전개되어 그려져 있다.

봉건체제의 질서와 명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의지에 찬 죽음은 할복이라는 이름아래에 속죄와 지상 최고의 명예를 한꺼번에 획득하게 된다. 복수는 은혜와 진배없는 덕으로서 경의를 표했다. 자신들에게 악한 행동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선을 행한 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하다는 것을 義로 보여주었다.

9) 막부의 감찰관이 아코성의 감시임무를 띠고 아코에 왔을 때, 아사노가 재흥을 막부에 전해주도록 부탁하면서, "돌아가신 주군으로서의 조상의 제사를 끊기게 하는 것은 효에 어긋나는 일 주군께서는 동생인 다이가쿠 나가히로가 있으니 다이가쿠를 내세워 아사노 가문의 재흥을 도모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감찰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에서도 오이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주신구라』 제2장에서 의전담당 관리의 한사람으로 등장하는 와카사노스케가 일전에 상부 책임자인 모로노로부터 받은 모욕을 참지 못해 무사의 굳은 결심으로 기필코 내일은 처단해 버리겠다고 하며, 그때 부하인 가코가와 혼조에게 절대 말리지 마라고 주의를 준다. (明日はもはや了簡ならず。御前にて恥面かかせる武士の意地。そのうへにて討つて捨つるかならず留めるな。) 평소 자신이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사로서의 근성도 있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무사도의 수호신(弓矢神)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한다. 이에 혼조는 맞장구를 치며 그 뜻을 이해하지만 주인인 와카사노스케의 목숨과 가문을 위해 그 길로 당장 모로노 저택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간다. 목적은, 와카사노스케와 모로노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進物)¹⁰⁾을 바치기 위해서다. 곧이어 제3장에서, 혼조가 충의의 표시로 뇌물을 받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주판의 셈이 틀림없어 계획한 대로 꼭 실천에 옮기는 忠義忠臣忠孝의 道(二一天作 そろばんの。桁をちがへぬ白鼠。忠義忠臣忠孝の。道は一筋眞つ直ぐに)」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

혼조는 부하의 직분으로 주인에 대한 충의는 그야말로 충신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자기자신을 否定하지 않고서는 義士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모순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의 문맥에서 兩義的(ambiguous)으로 나타난다. 유라노스케도 단지 忠義와 사려깊은 인물로 설정하면 극으로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므로 一茶茶屋에서의 방탕한 장면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모순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인물은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은 이 작품 전후의 近松작품에서도 기리와 닌조의 연애극을 통해 잘 그려져 있다. 즉 작가는 기리와 닌조의 굴레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 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모순의 얽매임없이 행복한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다.¹¹⁾

제8장과 제9장에 걸쳐서는 근친간 그리고 세간에 대한 기리가 내러티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코가와와 딸 고나미는 어렵사리 오보시 리키야와 연분을 맺었지만, 제8장에서,

그 사랑도 막혀, 단지 약혼자라고 할 뿐이지 납폐의식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아무 진전도 없어 고나미는 그저 슬픔에 젖어있을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 도나세는 그러한 딸을 차마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망을 이루어 주게 하고 싶어, 오로지 야마시나에 있는 사위 리키야만을 믿고 쳐들어가서는 혼담을

10) 아코로닌의 복수극 발달설 가운데, 아사노가 기라에게 선사한 뇌물이 그다지 변변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력하다. 봉록이 적은 기라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의 일부를 뇌물로 충당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아사노에게 너무나도 노골적인 모욕을 가한 것이 소나무 복도에서 칼부림을 야기시킨 것이다.

11) 對談「日本人の表現」 『中央公論文芸特集』1986年春季号 의 山崎正和 의 대화문 참조

성사시키려고 하지만, 그저 약혼자라는 관계일 뿐이어서 세간의 의리상 결혼을 승락해 줄지 아니면 조심스레 거절할지¹²⁾

라고, 想像이 안 간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기리는 사회적 책무인 것이다. 그런데, 제 9장에 들어가서 도나세가 오이시(お石=力彌의 어머니)에게 혼담을 거절당하고 고나미의 마음을 추스리는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두둔하고 편드는지 몰라도,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기량과 용모를 가진 네 딸한테 좋은 신랑감이 있었으면 해서 물색해 혼례의 약속을 한 리키야 도령을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건만 그 보람도 없이, 리키야 도령에게 알리지 않고 오이시 어른께서 혼인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연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납득이 안 간다. 아, 그리고 보니 로닌의 몸이라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가문이 좋다는 것을 내 세위 부유한 조닌의 신랑감이 되어, 의리도 범도도 잊었나보다.¹³⁾

라고 말한 것은, 世間の 義理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도의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욱이 도나세가 「특히 너는 전처의 자식으로 내 수양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했다고 듣게 된다면 아무래도 살아갈 수 없는 이치」¹⁴⁾라고 한 것과, 오이시가 「양녀인 외동딸을 죽이려까지 한 도나세 부인의 심정」¹⁵⁾이라고 도나세에게 말한 것은 법률상의 근친관계로부터 생긴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7장에서 헤이에몬(平右衛門)이 여동생인 오카루에게 죽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네 목숨이다. 그 이유는 충의에만 외곶으로 빠져있는 유라노스케가 간페이 아내인지 모르면 기적에서 이름을 빼내줄 도리도 없다」¹⁶⁾고 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혹은 상대방에 따라서 기리는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12) 「戀の枷杭加古川の。娘小浪がいひなづけ結納も。取らずそのままに振り捨てられしもの思ひ。母の思ひは山科の壻の力彌を力にて住家へおして嫁入りも。世にありなしの義理遠慮」(新潮日本古典集成・浄瑠璃集 『仮名手本忠臣藏』 p.256)

13) 「親の欲目か知らねども。ほんにそなたの器量なら。十人並みにもまさつた娘。よい婿をがなと詮議していひなづけした力弥殿。尋ねて來た甲斐もなう。壻に知らさず去つたとは。義理にもいはれぬおいし殿。姑去りは心得ぬ。ムムムさては浪人の身の寄るべなう節目をいひたて。有徳な町人の婿になつて。義理も。法も忘れたな。」(앞의 책, p.267)

14) 「ことにそなたは先妻の子。わしとはなきぬ仲ちやゆゑおよそにしたかと思はれては。どうも生きてはゐられぬ義理。」(앞의 책, p.269)

15) 「義理ある仲のひとり娘。殺さうとまで思ひ詰めた 戸無瀬様の心底。」(앞의 책, p.270)

16) 「とても逃れぬそちが命。そのわけは。忠義一途に癡りかたまつた由良之助殿。勘平が女房と知らねば 請け出す 義理もなし。」(앞의 책, p.252)

간페이는 오카루에게도 主君에게도 성실한 사무라이였다. 그런데, 그가 오카루에게 성실하려고 했던 사이에 주군에게 충의를 표할 기회를 놓치고, 오카루의 가족이 간페이의 충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그것이 오히려 간페이를 궁지에 몰고 간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성의와 주군에 대한 충성이 양립되지 못했다. 두가지의 충성이 다같이 성립되지 못한 입장에 몰린 것을 불운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를 가르고 만다.

주군에 대한 忠誠의 義理와 애인에 대한 사랑의 仁道, 이 두가지의 모순 때문에 할복했기에 그의 죽음은 기리와 仁道의 비극인 것이다.¹⁸⁾ 물론, 할복자살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할복에 의해 자신이 기리와 仁道 그 어느것도 배반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할 수 있었으며, 양쪽 모두에게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서민들이 즐기는 기리 仁道의 비극은 여러가지로 다른 인간관계 속에 놓여진 사람들이 어느쪽이나 다 성의를 다하려고 노력하다 딜레마에 빠져 자기자신에 별을 가하여 성의만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4. 『주신구라』의 仁道¹⁹⁾

<주신구라>가 일본의 대중문화사상 최대의 성공작이라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주신구라>라고 하는 것은 단일의 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주신구라 작품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1748년에 초연된 다케다 이즈모 외의 합작인 『가나데후주신구라』가 가장 유명하여 편의상 『주신구라』로 부르지만, 연극, 講談, 浪花節, 史伝, 小説, 映畫, TV 드라마 등에 있어서의 아코낭인물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그 총수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하다. 그 방대한 작품은 하나의 작품이 있고 그것이 각색되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몇 개인가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 있는데 공통되는 대강의 스토리와 주요한 에피소드는 있지만 그 작품들을 무수한 작가가 마음껏 도용해

17) 藤野義雄 『仮名手本忠臣蔵 解釋と研究(上)』 櫻楓社, 1974, pp.64~65

18) 源 了圓(『義理と人情』中公新書191)은 의리 인정을 한쌍으로 사용하여 情的이며 피스널한 인간 관계에 성립되는 일종의 人倫, 마음의 본자세를 뜻한다고 했으며, 이 경우 의리와 인정은 다 함께 어떤 따뜻하고 녹녹한 성격을 지닌 인간관계에 뿌리를 내린 心情道德이라 했다.

19) 仁道(人情)라는 말이 <기리와 仁道>를 주제로 하는 작품에 나오는 것은 의외로 늦다. 지카마쓰의 「雁がねの春は歸ると申せども、秋來る迄に忘れもせず、人情の移ること人間に變らず」(『用明天皇職人鑑』)의 용례가 유일하다. 대부분은 「情け」라는 말을 사용한다. 기리와 仁道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人情本이며, 비킨(馬琴)도 仁道라는 말을 이따금 사용했다 문학작품 속에서 仁道라는 말의 사용이 확정된 것은 비쿠후 말기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앞의 책, p.18)

이것저것 바꿔 해석을 조금씩 변화시켜 서로 독립된 수많은 작품으로 꾸며댄다. 그 결과, 講談과 歌舞伎에서는 같은 義士伝 이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講談 계통의 이야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딘지 모르게 『주신구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주신구라 작품군은 가부키를 감상할 여유도 없는 층까지도 깊이 자라잡고 있으며 지식층에서 하층의 무학자까지 잘 알려져 있다.

가부키는 일반 서민예술로 알려져 있는 듯하지만,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에는 아무리 소극장규모의 공연과 지방순회공연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가부키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관객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있는 계층이었다. 특히 신작이 초연되는 에도와 오사카 大坂의 일류 극장은 부유한 조년의 후원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루리와 가부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상층부 조년이 가장 좋아하는 기리와 닌조다. 『주신구라』도 층의가 제일의 주제임은 틀림없지만, 오카루 간페이(간페이의 일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애, 닌조가 제2주제로 중요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닌조의 테마가 층의 쪽을 압도한다.

엔야 한간이 모로노에게 칼부림을 했을 때, 한간을 모시고 있던 부하 간페이는 시녀인 오카루와 연애하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주군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를 못한다. 사건후, 어쩔 수없이 오카루와 함께 그녀의 고향집으로 도주하지만, 근무태만의 책임을 통감하고 義士의 무리에 들어가길 소망한다. 그런데 그 희망사항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카루 부친이 자기의 여식을 유곽에 판다고 하는 쓰라린 국면에 다다르게 된다. 돈을 마련한 부친이 귀가 도중에 도적 사다쿠로에게 살해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만다. 그때 우연히 간페이가 지나가다가 사다쿠로를 죽이고 돈을 되찾게 되지만 칠혹 같은 밤이어서 자신이 장인을 죽였다고 오해하고 수중에 넣은 돈을 義士에 맡기고 자신은 죄값을 치를 요량으로 할복자살을 하고 만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군에 대한 층의라고 하는 것도 단지 주군이니까 층의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카루와의 사랑에 관대했던 주군에게 인간적인 닌조 때문에 부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면목이 없는 간페이가 고민하는 대목이 주군과 부하는 개인적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이라는 식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그 주군에 대한 층의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장인을 살해한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복하는 장면에서는 주군에 대한 기리와 장인에 대한 기리의 무게가 거의 같다고 본다. 이러한 극의 구조는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무사사회에서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되어 있으며 친자에 가까운 닌조의 심정을 온당한 것으로 보고 층보다도 오히려 닌조와 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조년에게는 틀림없이 커다란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²⁰⁾

20) 佐藤忠男 『忠臣藏一意地の系譜』 朝日選書76, 1976.12, pp.97~99

戰國時代도 아닌 태평한 시대에 목숨을 다바쳐 주군의 복수를 갚는 무사도의 충의만으로 『주신구라』가 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1710년(寶永七) 아코낭 인물의 붐을 타고 등장한 작품에는 장르를 뛰어넘어 어떤 공통된 특색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뉴스성을 중시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카마쓰의 『碁盤太平記』의 습격장면은 그 전형인데, 사건을 그대로 각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寶永期의 낭인물 붐이 지나가고 아코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점점 덜해감에 따라서 연극계에서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난다. 하나는, 享保期(1716-1735) 이후 무사도의 체계화와 더불어 충의의 정신이 강조되어 가는 것이다. 가부키나 조루리의 연극제목에 『忠臣いろは軍記』(1717)라든지 『忠臣金短冊』(1732)라고 「忠臣」이라는 제목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닌조와 금전에 얽힌 조년의 생활패턴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신구라』는 이러한 무사적 요소와 조년적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선행작품의 다양한 취향과 수법을 채용하면서 이들을 18세기 중엽의 현대풍에 맞게 재구성하고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²¹⁾ 그리고 유라노스케와 오카루·간페이 등의 매력적인 인물을 조형하여 幕藩制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과 고뇌를 사실적으로 그린 대서사시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 점에 이 작품이 후대에 이르기까지도 영원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²²⁾

5. 마무리

제목으로부터는 전근대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人情과 金錢에 얽힌 이야기는 현대인에게도 공감을 가져다 주는 『주신구라』 인기의 원천이다. 모델이 되었던 赤穂事件은, 칼부림 사건(刃傷)과 기래(吉良) 저택 습격사건으로 되어 있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습격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칼부림 사건이다. 이러한 싸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런데, 赤穂事件의 경우는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향간에 여러 설이 유포되어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주신구라』의 작가들은 그 원인을, 가오요를 향한 부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과 한간이 모로노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한 노여움이라는 것으로 집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人情과 金錢의 원한에서 비롯된 모로노의 일방적인 욕설이 한간으로 하

21) 山内美樹子 「假名手本忠臣藏の作者」(『國文學』31卷15号, 學燈社, 1986, p65)

22) 拙稿 「주신구라와 에도문화」(『日語日文學研究』제42집, 2002.08. p.111)

여금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사랑과 돈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소재로 한 설정은 에도시대의 조난에게 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 것이다. 사랑과 돈에 얽힌 싸움이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카마쓰의 『碁盤太平記』가 후대의 주신구라 문예물과 다른 점은 『碁後太平記』와 같이 주군의 가문을 재건하려는 떠돌이 무사가 할복한다고 하는 결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쿠후의 할복이라는 처벌은 幕藩制의 질서와 무사의 충의가 타협을 짓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응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충효를 장려해온 바쿠후가 전대미문의 충신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義士論爭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幕藩制 질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碁盤太平記』는 목적을 이루고 할복한 오보시 이하 45인의 동지를 호소카와 쓰나토시(細川綱利)와 같이 무사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시기는 하지만, 그 할복 장면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삼 지배의 과혹함을 통감하게 하였으며 주인을 잃은 무사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한층더 강하게 갖게 하였다. 낭인의 처형직후부터 에도를 엄습한 강풍을 「46인 망혼의 재앙」이라고 하는 소문이 떠돌고, 더욱이 쇼군 쓰나요시의 죽음과 더불어 정치비판의 낙서가 나도는 상황에서는, 할복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것은 바쿠후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주신구라 연극에서 할복 장면이 금방 사라지게 된 것은 이러한 바쿠후에 대한 조심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코사건을 극화해서 서민들의 꿈이나 모험심에 가득찬 낭만을 갖게 하는 오락물로서 주신구라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해서는, 아코낭인 전원이 할복하는 장면은, 사건의 비참함을 잊고 관객을 카타르시스로 향하게 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신구라』는 이렇게 해서 비로소 시대와 계층을 초월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친숙한 국민적 서사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參考文獻】

- ・渥美清太郎編纂『日本戲曲全集・赤穂義士劇篇』春陽堂, 1928年, pp581-751
- ・額原退藏『江戸文芸』晁文肚, 1942年, pp144-166
- ・藤野義雄『仮名手本忠臣藏 解釋と研究㊦』櫻楓社, 1974年, pp64-65
- ・源了円『義理と人情』中公新書, 1976年, pp18-22
- ・佐藤忠男『忠臣藏一意地の系譜』朝日選書76, 1976.12, pp.97-99
- ・新潮日本古典集成・浄瑠璃集『仮名手本忠臣藏』, pp.153-313
- ・『國文學』忠臣藏・日本人の証明, 學燈社, 1986年, pp58-66
- ・최정호 외『일본 문화의 뿌리와 한국』문학과지성사, 1993年
- ・服部幸雄編著『仮名手本忠臣藏』白水社, 1994年
- ・國立文樂劇場調査養成課調査資料係編『忠臣藏の世界』日本芸術文化振興會, 1994年
- ・小澤富夫『武士 行動の美學』玉川大學出版部, 1994年, pp123-4
- ・丸谷才一『芝居は忠臣藏』文芸春秋, 1995年, pp9-21
- ・赤穂市役所市史編纂室編『忠臣藏』第六卷, 赤穂市, 1997年
- ・西山松之助『図説忠臣藏』河出書房新社, 1998年, pp12-20
- ・宮澤誠一『赤穂浪士—紡ぎ出される「忠臣藏」』三省堂, 1999年, pp213-214

【Abstract】

The Loyalty and Charity on Chushingura

Having become accustomed to a long period of peace, the Edo citizens were still unaware of any sense of danger regarding the oncoming hardships. Instead, their interest was focused on the slaughter of Kira Kozukenosuke Yoshinaka by Asano Takuminocami Naganori in the Pine Corridor of Edo Castle in 1701 (Genroku14). This shocking event led to the minister committing harakiri, the Ako-Roshi (47 samurai) attacking Kira's residence, and the 47 samurai committing harakiri. It turned out to be the greatest "revenge" case in the history of Japan. Chushingura is the title given to the fiction based on this series of events known as the "Ako Case". This title began to be used in general from the first performance of "Kanadehon Chushingura", a ningyo-joruri (puppet theater play) by Takeda Izumo when the puppet theater was at the height of fashion in Osaka in 1748. It eventually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works in kabuki, a sure crowd-pleaser. Truth and falsehood were mixed to result in a glamorous and grand synopsis. Over the years, Chushingura underwent fermentation and embellishment. People came to believe that it had actually taken place in reality and the drama excited the populace. It spread further to media such as kodan, rokyoku, and film. This drama, which originated in Osaka, reflected the image of the samurai as seen by the chonin (trading class) and was an expression of sympathy and support towards the people who were bound by the yoke of justice and charity, loyalty and duty. Chushingura is finished, when the loyal retainers achieved the revenge. But Tokugawa shogunate government ordered them to do the ritual suicide. At the result, they all were killed. I think lord-less retainers had no method to live except thinking how to die. This is how Chushingura became so outstandingly popular. Nevertheless, Chushingura itself was the vogue and not the Ako samurai. The truth of this national drama is buried in mundane historical events and remains wrapped in various mysteries. The ins and outs of the shocking event, which took place in an era of grandeur,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volved stirred the imagination of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eras. It remains the eternal best-seller, dear to the heart of every Japanese and guarantees a box-office success whenever performed, however severe a recession there may be.

Keyword : Kanadehon Chushingura, loyalty, charity, revenge, harakiri, Ako samurai

투 고 : 2003. 2. 28

2차 심사 : 2003. 3. 22

3차 심사 : 2003. 4. 12

住 所 : (712 - 758) 경북 경산시 사정동 124 삼산타운 102동 902호

電 話 : 017-501-6151

E-mail : champong@hotmail.com